

“민주당 ‘오빠 카르텔’ 특검 수사해야”

한동훈, 신약로비 의혹 정조준
김승원 후보자청문위원 선임 요청
“전과자 법무부 장관 탄생 막아야”
민주당, 녹취록 출처 공개 압박



한동훈 의원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7일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신약로비를 청탁한 브로커 양모씨가 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오페라고 부른 사실’과 관련 “민주당 오페들 카르텔에 대한 특검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 전에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은 김승원 양수진의 오페 독약 로비를 공약이라고 우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국민과 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왜 민주당 오페 카르텔이 오페 독약 로비를 이렇게 몸으로 보호하고 있는지, 민주당 오페 카르텔이 얼마나 부패한 세력인지를 국민 앞에 낱알이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낱을 세웠다.

한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가 인사청

문회에 자신을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촉구한 것’과 관련, 조정식 국회의장에게 “나를 인사청문회 청문위원으로 선임해달라”고 요청한 뒤에 “임시정부 이래 최초로 전과자 법무부 장관이 탄

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 의원은 김승원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신약 로비와 관련, 브로커 양모씨가 김 의원을 오페라고 부르고, 김 의

원은 양모씨에게 ‘보고 싶어 눈물이 난다’는 내용을 포함, 신약 로비를 부탁한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고, 민주당은 출처를 대라고 한 후보를 압박하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교권침해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 막아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 관계자들이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대상으로 한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최성민 기자>

도민평가단 50명 출범 전북 민선9기 166개 공약 검증

3차례 회의 거쳐 권고안 마련
심의 후 11월 초 최종 확정

전북도가 민선9기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 도민 참여를 확대하고 공약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검증 절차에 돌입했다.

도는 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임철언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한 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도민평가단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전북특별자치도 도민평가단’ 출범식을 열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도민평가단은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 수립 단계부터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업별 추진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평가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운영을 위탁했으며 18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한 무작위 추첨과 전화 면접을 거쳐 50명을 선발했다.

이날 1차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매니페스토 교육에 이어 도민평가단을 5개 분임으로 구성하고, 공약실천계획 가운데 중점적으로 검토할 안건을 선정했다.

민선9기 공약실천계획안은 총 7대 분야 166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분야별로는 ▲참여로 커지는 도민주권 9개 ▲내일을 바꾸는 체감경제 48개 ▲미래를 선도할 첨단산업 24개 ▲시대를 앞서갈 농생명 19개 ▲세게로 빛나는 문화관광 32개 ▲모두가 누리는 더 큰 행복 22개 ▲생명이 숨쉬는 생태환경 12개다.

도민평가단은 오는 28일 2차 회의에서 공약사업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업별 추진계획을 듣고 질의응답과 분임별 토의를 진행한다. 이어 10월 12일 3차 회의에서 공약실천계획에 대한 최종 의견을 모아 권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도민평가단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공약실천계획을 보완한 뒤 관련 실·국장과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약사업 자문평가단’ 심의를 거쳐 11월 초 최종 확정하고 도 누리집에 공개할 계획이다. 자문평가단은 공약실천계획안과 변경안에 대한 심의·자문, 공약사업 추진상황 평가 등의 역할을 맡는다.

이에 대해 임철언 전북자치도 기획조정실장은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인 만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살해협박 피해 교사에 아동학대 신고” 법 개정 촉구

군산 교사 5차례 피소 끝 ‘혐의없음’
전교조 전북 “아동학대 신고 악용”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적용 제외 요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북지부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침해 피해 교사를 향한 악의적인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해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의 개정을 교육당국에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아동학대 신고 제도가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를 다시 공격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 확보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처벌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단체는 “군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는 지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학생에게 지속적인 모욕과 살해 협박을 받았다”며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가 출석정지 7일과 심리치료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 측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불복했고, 동시에 교사를 상대로 5차례에 걸쳐 아동학대 신고를 남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체는 “이 과정에서 다른 학생들이 강요와 부탁으로 허위 진술서를 작성한 정황이 확인됐으며, 검찰은 2024년 11월 교사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데 이어 학생 측의 항고도 기각했다”며 “법원 역시 학생 측의 행정소송을 각하해 교보위 처분이 유효함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단체는 제도 개선을 위한 4대 요구안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와 방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교육활동 중 금지 행위는 ‘초·중등교육법’ 등 교육관계법령에 명확히 규정 △‘아동학대처벌법’을 개정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거짓·조작 진술을 통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책임을 묻는 법적 장치를 마련 등을 제시했다.

/최성민 기자

전북 농촌융복합 인증제품, 유통업계 연계 강화

전북도가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의 판로 확대를 위해 유통업계와의 연계를 강화한다.

도는 지난 4일 농촌경제사회서비스원 성화지원센터에서 도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2026 농촌융복합산업 제품발굴 2차 품평회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품평회는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제품의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유통채널 입점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품평회에는 도내 27개 인증경영체가 참여해 74개 제품을 선보였다. 일일삼스

토어를 비롯해 롯데쇼핑, 코레일유통 등 유통채널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품의 품질과 상품성, 입점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유통업계 MD들은 제품을 직접 시음·시식하고 제품별 특성과 상품성을 살펴봤으며, 입점 가능성이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경영체와 개별 상담을 진행했다. 참여 경영체들은 제품 특성과 경쟁력을 소개하고 유통채널별 입점 조건과 판매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2차 품평회는 지난 4월 열린 1차 품평회의 후속 행사로 추진됐다. 1차 품평회에서는 경영체와 유통채널 간 1대 1 상담을 통해 15개 경영체의 37개 제품이 일일삼스토어 11개소에 입점했다. 전

국 단위 오프라인 공동구매 유통 플랫폼 ‘다이얼로’를 통해 1억 원 이상의 판매실적을 기록했으며, ‘하우스오브신세계’ 창당에도 인증제품이 입점했다.

올해 1·2차 품평회에는 총 52개 경영체, 149개 제품이 참여했다. 도는 품평회 평가 결과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한 제품을 판매장과 유통채널 입점으로 연계하고, 우수 경영체에는 박람회와 수도권 판촉전 등의 참여를 지원할 계획이다.

민선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품평회가 실제 입점과 판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강화해 인증경영체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머무는 가을, 구절초에 담다

제19회 정읍 구절초 골목축제

2026. 10. 8. (목) ~ 10. 18. (일) 구절초 지방정원 (정읍시 산내면 매죽리 571)

개막식 및 축하공연
10월 10일(토) 오후 3시

출연가수

박지현 김희재 김다현 신동재

행사 토크콘서트
10. 9.(금) 오후 12시 : 말자쇼(김영희)
10.11.(일) 오후 2시 : 한의사 김오곤
10.17.(토) 오후 2시 : 개그맨 안윤상
10.18.(일) 오후 2시 : 시인 나태주

주최 주관 정읍시/정읍시구절초축제추진위원회 후원 전북특별자치도 한국관광공사 K-water 한국수자원공사

보행할때 꼭 지켜야할 교통안전 수칙

횡단보도 신호준수

스마트기기 사용금지

무단횡단 금지

작은실천이 소중한 생명을 지킵시다.

전북자치도, 성장엔진 본격 시동

지역 강점과 기업투자 연계, 전북형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7일 오송 오스코에서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열린 제1회 ‘지방주도 성장엔진 협의회’에 참석해 도의 성장엔진 육성 전략과 향후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26일 대통령 주재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표된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 후속 조치로, 지방정부가 주도해 성장엔진 육성에 속도를 내고 기업 투자를 지역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통상부와 13개 지방정부 부단체장을 비롯해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진흥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 등 7대 정책 지원 패키지를 설명했다.

이어 앵커 기업 투자 프로젝트와 연계한 육성 계획 수립 방향을 지방정부와 공유하고, 권역별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도는 현대자동차의 새만금 대규모 투자를 산업구조 전환의 핵심 동력으로 삼아 그린수소 플랫폼, 첨단로봇 파운드리, 농·생명바이오 3대 분야를 집중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특히 새만금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지역의 제조·농생명 기반에 AI·바이오 등 첨단기술을 접목해 생산부터 실증·사업화까지 아우르는 미래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전북을 국가 전략 거점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현대차 투자의 조기 이행과 가시적 성과와 창출을 위해 ‘로봇·수소 메가특구’의 우선 지정을 요청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과 지역 제조업 전환 확산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도 건의했다.

산업부는 지방정부·지역혁신기관이 참여하는 권역별 공동사업단을 중심으로 올해 하반기까지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주도성장 협의체를 통해 핵심 프로젝트의 추진 경과와 애로사항을 지속 점

검할 방침이다.

4분기에는 육성 계획을 확정한 뒤 기업 투자 협약을 체결하고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해 투자 이행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고정삼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현대차의 대규모 투자를 계기로 전북의 강점과 3대 성장엔진을 연계해 새로운 산업생태계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7대 정책지원 패키지와 메가특구 등 지원 수단을 적극 활용해 기업 투자의 조기 성과를 이끌어내고, 전북을 대한민국 지방주도성장의 대표 모델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 농산물 수급상황 점검

추석 수요 증가 대비

전북농협은 7일 장계농협, 장수농협, 장수군지부와 함께 장수조합공동 사업법인 APC를 찾아 추석 성수기 농산물 수요 증가 대비한 주요 농산물의 선별·출하 및 수급 상황을 점검 했다.

농협은 추석 성수기를 앞두고 농축산물 수요증가에 대비한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3일부터 오는 23일까지 약 3주간 추석 성수품 10개 품목에 대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또한, 추석 성수기 소비자 물가 부

담 완화를 위해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전북생생장터 온라인몰에서 ‘전주 배’와 ‘무주 사과’를 오는 9일 부터 ‘제철제맛 산지 기획전’을 통해 할인 판매 할 예정이다.

김성훈 본부장은 “농업인이 정성껏 생산한 우리 농산물로 소중한 분들과 감사의 마음을 주고 받는 따뜻한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길 바란다”며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농산물 수급안정과 가격 관리에 만전을 기해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든든한 전북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기자

전북자치도, 금융 공공기관 유치 ‘총력’

이전 실행에 필요한 법률 개정안 발의 준비

전북특별자치도가 금융중심도시로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 금융 관련 기관 유치와 관련 법률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3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5대 원칙을 공식 발표하고 4분기 중 이전계획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농협중앙회·한국산업은행 등 도가 유치를 추진 중인 주요 금융기관은 설립 근거법에 분점 또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서울로 명시돼 있어, 이전 결정 시 즉시 실행이 가능하도록 국회와의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7일 도에 따르면, 유치 추진 기관 가운데 법률 개정 검토가 필요한 곳은 총 8개다. 이 중 농협중앙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새마을금고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교직원공제회 등 7개 기관은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전 자체가 불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농협협동조합법 제114조는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한국산업은행법과 중소기업은행법 제4조는 각각 본점 소재지를, 예금자보호법 제4조와 새마을금고법 제54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17조 역시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정관 개정만으로도 이전이 가능하지만, 유치확정의 확실성을 높이기 위해 법률 개정도 검토되고 있다.

이 밖의 8개 공제회는 개별 법률의 단서 조항에 따라 정관 개정만으로 소재지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이들 기관 역시 정관 개정 절차와 이사의 의결 등 별도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는 이 같은 제도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10일에는 국회를 방문해 지역 의원실에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고, 27일에는 이원택 도지사와 지역 국회의원이 핵심기관의 전북 배치와 관련 법률 개정 협력을 골자로 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특히 농협협동조합법의 경우 이성윤·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도는 정부의 이전계획 확정에 앞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기관별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고, 소재지 규정 정비가 특정 지역이 아닌 2차 이전 정책 전반의 실행 기반이라는 점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협의 결과를 토대로 연내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도가 금융기관 유치에 공을 들이는 것

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중심으로 이미 형성된 금융생태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약 1,800조 원 규모의 기금운용 역량을 바탕으로 신한·KB·우리·하나 등 5대 금융그룹의 협력 거점 구축이 추진되는 가운데, 금융위원회도 전북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를 평가하고 연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이전이 성사되면 국민연금 중심의 자산운용에 민간 금융과 공공기관이 더해져 투자와 산업 지원이 맞물리는 구조가 기대된다.

염기남 전북자치도 정책기획관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의 소재지 규정 정비는 특정 지역의 이해가 아니라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 전체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는 문제”라며 “정부 이전계획과 연계해 관련 법률 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국회 및 지역 정치권과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사진=군산시>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10개소 추가 지정

군산시가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산시는 최근 ‘2026년 제3회 군산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 구역에 대한 심의를 거쳐 10개 구역을 신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신봉·문화 △군산읍담다(월명동 행정복지센터 주변) △리첼아미파크(수송동) △신일상가 △수송우리(수송동 KB국민은행 주변) △동국사길 △하나운길 △내흥 △미장남로 △나운문화 골목형상점가 등 10개소다.

또한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비롯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어 시설·환경 개선, 판로 및 홍보 지원 등 상권 경쟁력을 강화할 기회도 넓어진다.

특히 이번 지정은 수송동, 나운동 등 생활밀착형 상권부터 원도심과 신역세권까지 군산 곳곳의 다양한 골목상권을 아우르고 있어, 소상공인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는 신규 지정 상점가를 대상으로 은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절차를 적극 안내하는 한편, 상인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각 상권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활성화 사업 발굴에도 힘을 기울인다.

김영민 부시장은 “이번 추가 지정으로 더 많은 소상공인이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한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지정에 그치지 않고 각 상권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적극 소통하며 후속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사진=완주 구이농협>

완주 구이농협, 농기계 이동수리센터 운영

완주 구이농협이 농협경제지주 중부자재센터와 함께 최근 3일간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기계 이동수리센터’를 운영해 조합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행사는 농기계 고장이 잦은 영농철에 조합원들의 정비 부담을 덜어주고 수리 센터 방문이 어려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문 정비 인력과 이동수리 차량이 구이농협을 방문해 트랙터, 관리기 등

주요 농기계 70여대를 대상으로 정비·점검을 실시 했으며, 오일류와 소모품 교체를 비롯해 각종 경정비도 함께 진행 했다.

최만열 조합장은 “농기계 정비에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이동수리센터 운영을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영농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심사

2025년도 기금 총액 1조원 넘어…활용방안 마련 주문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염영선)는 7일 기획조정실(전북연구원,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 대변인,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을 심사했다.

의원별 주요 질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염영선(정읍2) 위원장은 2025년도 기금 총액이 1조원을 넘어 일반회계 규모에 비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전년 대비 상당액 이상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기금의 적립규모를 늘리는 것보다 설치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활용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장현(부안) 부위원장은 법정, 의무적 경비나 계속사업비 등 본예산에 편성해야할 예산을 일부만 편성하고 부족분을 추가경정예산으로 충당하는 방식

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편성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태창(군산1) 의원은 지방비 미매칭으로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것은 재정 운용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미매칭 및 반납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시군에서 보조금을 반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강(고창2) 의원은 아동보조전담 요원 지원사업 관련 사업 규모와 반납액 자체는 크지 않지만 국고보조금이 반납되는 것은 국비 확보 및 재정 운용 측면에서 아쉬운 부분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경만(전주12) 의원은 세입예산 중 시·군으로부터 시도비 반환금이 수납되

지 않은 현황을 점검하고 반환고지 여부와 미수납 사유를 확인했다. 이어 시·군에서 반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리, 독려하고 미수납된 반환금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송재영(전주5) 의원은 시·군 매정사업 추진 시 도 차원에서 시·군의 재정 여건과 지방비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결산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시·군비 미매칭 사업이 발생한 만큼 매정사업에 대한 조정·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광역자치단체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윤수봉(완주1) 의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연구용역비가 이행되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바람직하지 않이라며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월된 용역비의 구체적인 사유와 집행계획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향후 불필요한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일정을 철저히 관리할 것을 지적했다.

정종복(전주3) 의원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현사업 관련 향후 사업 추진 가능성, 준공 이후 당초 목적에 맞게 활용될 수 있는지 등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북연구원을 비롯한 출자·출연기관의 공간부족 문제와 도내 지역균형발전전을 고려해 글로벌리더센터를 활용한 출연기관 이전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조은희(익산2) 의원은 대변인 소관 예산 집행잔액이 적다고 해서 도정 홍보가 효과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수는 없다며 도민과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묻고 도정 주요 정책이 도민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홍보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장정철 기자

벼 생산량 좌우하는 토양 속 ‘핵심 미생물’ 찾았다

농진청, 논 토양 유전체 분석… 국제학술지 게재

벼 생산량과 밀접하게 연관된 토양 속 핵심 미생물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확인됐다. 향후 화학비료 의존도를 낮추면서 벼 생산성을 높이는 친환경 미생물제 개발과 토양 건강 평가 기술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전국 논 토양의 미생물 군집을 유전체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벼 생산량이 높은 토양에서 특정 미생물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7일 밝혔다.

토양 1g에는 수천에서 수만 종의 미생물이 서식하지만 현재 실험실에서 배양할 수 있는 미생물은 전체의 약 5%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상당수 토양 미생물은 존재 자체는 확인됐어도 작물 생육과 토양 환경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농진청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논 토양 60곳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토양에서 직접 유전체를 추출해 염기서열을 분석했다. 기존 배양 방식으로 확인하기 어려웠던 미생물까지 포함해 군집 구성과 분포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벼 생산량이 높은 토양은 생산량이 낮은 토양보다 미생물의 종

풍부도와 군집 다양성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특히 고생선 토양에서는 ‘지오모빌리박터(Geomobillibacter)’가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나타났다.

지오모빌리박터는 질 환원과 질소 순환에 관여하고 작물의 질소 고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생물이다. 연구진은 또 질소 순환 관련 유전자를 가진 ‘컨텐도박터(Contendobacter)’가 벼 생산량과 직접적인 양(+)의 연관성을 갖는 미생물 연결망의 핵심 구성원이란 사실도 확인했다.

이번 연구는 특정 미생물의 존재 여부를 넘어 벼 생산성과 연관된 미생물 군집의 특성을 유전체 수준에서 규명했

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진청은 이를 토대로 토양 건강을 평가하는 새로운 미생물 지표를 구축하고, 핵심 미생물의 기능을 정밀 분석해 농업 현장에 활용할 계획이다.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Applied Soil Ecology’에 게재됐다. 한상현 농촌진흥청 농업미생물과장은 “확인된 핵심 미생물을 실제로 분리·배양해 미생물제로 개발한다면 친환경적으로 벼 생산성을 높이는 지속 가능한 농업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 시대에 다양한 작물에 적용할 차세대 농업 미생물 개발에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전했다.

/최준호 기자

천호성 교육감, 지역 교육협력 해법 모색

7일 고창 시작으로
14개 시·군 순회
11월까지 정책간담회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맞서 도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 강화에 나선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도내 14개



천호성 교육감

시·군을 차례로 방문하는 '2026년 교육감 시군 방문 교육협력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일정은 지난달 13일 천호성 교육감과 도지사, 14개 시장·군수가 체결한 '교육협력 공동 업무협약'을

구체화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간담회에는 천 교육감을 비롯해 해당 시·군의 단장장과 교육장, 지자체 및 교육청 실무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머리를 맞댄다. 참석자들은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주요 교육 현안 및 건의사항을 공유하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핵심 협력 의제와 맞춤형 정책 과제를 집중 논의한다. 전북교육청은 순회 간담회에서 도출된

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행정·재정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시·군 및 교육지원청과 상시 소통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천호성 교육감은 "학령인구 감소와 소멸 위기를 극복하려면 교육청과 지자체의 견고한 연대가 필수적"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살펴 지역의 특성에 들어맞는 상생형 교육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성민 기자

군산시, 옥구읍성에서 후백제 흔적 확인

후백제 시대 추정
유구 및 유물 출토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옥구읍성 일원 발굴·시굴조사를 통해 후백제 시대의 생활과 생산 활동을 보여주는 다양한 유구와 유물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옥구읍성의 후백제 유적은 2024년 하반기 옥구읍성 동헌 터를 찾기 위한 시굴조사 과정에서 신라 말~고려 초에 해당하는 후백제 시대 기와가 발견되면서

그 존재가 처음 확인됐으며, 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유적의 성격과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올해 4월부터 본격적인 발굴·시굴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후백제 시대 가마로 추정되는 유구, 담장으로 보이는 석열, 건물 주춧돌을 비롯해 다종능형문·사격자문·명문 기와 등이 다량 출토됐다. 이는 단순히 옥구 지역에 사람이 살았다는 사실을 넘어 당시 실제 건축과 생산 활동이 이뤄지며 생활·생산 공간 형

성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만큼, 후백제 시대 옥구의 기능과 역할을 밝힐 중요한 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官'과 '市'가 새겨진 기와는 향후 추가 조사와 학술적 검토를 통해 후백제 시대 옥구 지역의 행정·교류공간의 성격과 지역적 위상을 밝힐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 자료다. 이와 함께 백제시대 토기가마와 의례 행위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말·소의 두개골 뼈도 확인돼 이 일대의 역사가 후백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보다 오

랜 시기에 걸쳐 이어졌을 가능성도 보여졌다. 이번 발굴은 그동안 근대문화유산 중심으로 널리 알려졌던 군산시가 백제와 후백제, 고려로 이어지는 고대·중세 역사까지 문화적 외연을 크게 넓혔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를 시작으로 추가 발굴과 학술조사를 통해 옥구읍성의 성격과 역사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밝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음의 가을, 두 전시로 물든다”

정음시립박물관이 오늘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백제가요 '정음사'에 담긴 달의 의미와 석지 채용신이 그린 동물의 세계를 조망하는 두 전시를 선보인다. 서화실에서 열리는 기획특별전 '백제가요 정음사'와 달은 현재까지 전해지는 가장 오래된 노래로 알려진 '정음사'에서 출발한다. 먼 길을 떠난 이의 무사함을 빌며 달에 마음을 전한 노래를 조선의 달항아리와 근현대 미술, 조선백자로 넓혀 풀어낸다. 전시에서는 '정음사' 관련 기록이 담긴 '고려사'와 '악학궤범'을 비롯해 갈불이 칠경이 쓴 '정음사'를 만날 수 있다. 고이건희 회장이 유족이 기증한 이만익의 '정음사'도 함께 선보인다. 이어 조선시대 달항아리와 김환기의 달과 항아리 그림과 전통 방식으로 달항아리를 빚어 온 관대섭의 작품, 달항아리를 현대적으로 표현한 최영욱의 '카르마(Karma)'를 소개한다. 김환기의 작품 역시 고이건희 회장 유족 기증품이다. 관대섭과 최영욱 작가는 방탄소년단(BTS) 알엠(RM)과 빌&멜린다 케이트 재단이 각각 작품을 소장한 것으로 알려

져 국내외에서 주목받아 왔다. 전시 마지막에는 흰색 그대로의 순백자와 푸른색·갈색 안료로 무늬를 그린 청화백자와 철화백자를 배치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남아 있는 기록을 통해 정음에서 왕실이 사용하는 도자기를 만들었던 배경도 살펴볼 수 있다. 제1상설전시실에서는 테마전Ⅱ '동물, 상자를 담다 - 석지 채용신 영묘화'가 열린다. 채용신의 초상화와 꽃·새 그림을 다룬 앞선 전시에 이어 마련된 이번 전시는 그가 동물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어떻게 관찰하고 표현했는지 보여준다. 주요 작품은 국립전주박물관이 소장한 '영묘화 8폭 병풍'과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장생도'다. '장생도'는 여러 동물과 자연물에 복과 장수의 뜻을 담은 작품으로, 동물의 생김새와 움직임을 세밀하게 묘사한 점이 돋보인다. 채용신이 호랑이를 그린 작품은 정음 출신 화가 소제 이상길과 토림 김종현의 작품과 나란히 전시한다. 고이건희 회장 유족이 기증한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우석 황종하의 '맹호'도 더해 시대와 작가에 따라 달라지는 호랑이의 모습을 비교해 볼



<사진=정음시>

수 있도록 했다. 동물을 소재로 만든 고려청자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오리를 뚜껑에 얹고 연꽃 모양으로 빚은 대형 항로와 원앙 모양 뚜껑에 세 개의 다리를 갖춘 항로, 버드나무와 갈대가 우거진 물가에서 여러 마리의 새가 노니는 모습을 담은 정병 등이 전시된다. 자세한 사항은 정음시립박물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음=김정민 기자

고창군 '명사십리 달빛마실' 참가자 모집... 10일까지

고창문화관광재단이 고창 명사십리의 아름다운 자연과 지역 문화를 함께 즐기는 체류형 관광 프로그램 '2026 명사십리 달빛마실' 참가자를 오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별빛 가득, 파도 소리 가득! 고창 명사십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1박 2일'을 주제로 명사십리 해수욕장 일원에서 진행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고창전통시장 장보기 체험을 시작으로 후릿그물·조개채집 체험, 명사십리 달빛공원 관람, 고창갯벌센터의 갯벌 비누 만들기과 탐방열차 체험 등으로 구성됐다. 프로그램 간 이동은 전용 운영 차량을 이용하며, 식비와 체험비, 웰컴키트, 프로그램 활동비 등이 참가비에 포함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네이버폼을 통해 참여 일정과 숙박 형태를 선택해 신청한 뒤 참가비를 입금하면 된다. 모집 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0일까지이며, 팀별 모집이 완료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치유특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고창=백종규 기자



전북도민 화합의 장인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사진=전북체육회>

전북도민체전 폐막... 전주시 종합 1위 차지

익산 2위·진안 3위
신동초 노유림 3관왕에 MVP

전북도민 화합의 장인 '제63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가 사흘간의 일정을 마치고 폐막했다. 7일 전북특별자치도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생태치유 진안에서! 하나되는 전북도민!'을 구호로 진안군 일원에서 38개 종목에 걸쳐 치러졌다. 경기 결과 일반부 종합 1위는 전주시가 차지했고, 익산시가 2위, 첫 대회를 주최한 진안군이 3위에 올랐으며 군산시와 정읍시가 각각 4,

5위로 뒤를 이었다. 개회식 입장상에서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진안군이 1위를 차지했고 장수군과 부안군이 2, 3위를 기록했다. 학생부 최우수선수상(MVP)은 육상 100m와 200m, 400m 계주를 휩쓸며 3관왕에 오른 전주 신동초등학교 노유림(6년) 양에게 돌아갔다. 정강선 전북체육회장은 "처음 대회를 개최한 진안군과 도민들의 성원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며 "종목 확대 등을 통해 도민체전을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차기 개최지는 정읍시다. /최성민 기자

전북대, 2027학년도 수시 3,507명 모집

'지역인재' 27% 대폭 확대

전북대학교가 지역 정주형 우수인재 유치와 필수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2027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의 27%에 달하는 948명을 지역인재로 선발한다. 전북대는 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11일 오후 7시까지 대학 입학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2027학년도 수시모집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총 모집인원은 3,507명으로, 학생부교과전형 2,337명과 학생부종합전형 1,034명, 예체능실기전형 136명을 각각 선발한다. 이번 전형 개편은 지역에 정착할 인재를 집중 육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지역인재 선발 인원을 전년보다 114명(1.8%p) 늘어난 948명까지 끌어올렸으며, 기존 학생부교과전형에만 국한됐던 지원 자격을 학생부종합전형(지역인재 1·2유형)까지 전격 확대해 전북은 물론 호남권 수험생들의 선택 폭을 넓

혔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신설해 총 21명을 선발하기로 하고 전주권 9명, 광역권 6명, 정읍권·남원권 각 2명, 군산권·익산권 각 1명씩 권역별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 필수 의료 기반을 다질 계획이다. 전형 방식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을 100% 반영하며, 큰사람전형과 지역인재전형 등 학생부종합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80%와 2단계 면접평가 20%를 합산해 최종 합격자를 가린다. 국가보훈대상자와 농어촌학생, 기회균형선발전형 등은 서류평가 100%로 선발하되 전형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한다. 학생부종합전형 1단계 합격자는 오는 11월 20일 오후 2시에 발표하며, 11월 26일과 28일 면접고사를 치른 뒤 12월 18일 오후 2시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최종 합격자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방법



컴퓨터 10분이상 미사용 시
절전모드 사용



실내온도를 3도 낮게 설정하면
약20% 절전



에너지 효율 1등급 가전을 사용하면
최고45% 절전



전구식 형광등으로교체 하면
70%적립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뽑아 두기



양치질, 면도할때 물 잠 귀서
38% 에너지 절전





고창 해리면지사협 침수 피해 가구 주거환경 개선

고창군 해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김재규, 신동화)가 지난 4일 갑작스러운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를 찾아 침수 주택 청소 및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활동은 침수피해로 실의에 빠진 어르신들의 일상 복귀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협의체 위원들과 주민행복센터 직원들은 젖은 장판과 가구·집기류를 정리하는 등 집 안팎을 깔끔하게 청소하며 땀방울을 흘렸다.

또한, 추가적인 침수 위험이 없는지 주택 주변 배수로를 점검·정비하는 등 안전 살피기 활동도 병행하였다.

신동화 해리면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솔선수범해 주신 협의체 위원님들의 온정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긴밀히 협력하여 재난 재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따뜻한 해리면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완주군시설관리공단 임직원 응급대처 역량 강화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희수)은 임직원의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고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 공단 대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완주소방서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진행되었으며, 일상 속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론 교육에서는 응급 상황 발생 시 행동 요령, 심정지 환자 식별법, 119 신고 요령 등을 다뤘고, 이어진 실습 교육에서는 전 직원이 마네킨을 활용해 직접 가슴 압박 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을 실습했다.

이희수 이사장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우리 공단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교육을 통해 실전 역량을 확실히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박지연 고창군 인구정책팀장 ‘국무총리상’ 수상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공로

박지연 고창군청 인구정책팀장이 지난 4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박지연 팀장은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기부자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과 다양한 특별이벤트를 열고 기부자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이 단순한 기부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특색을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며 고창만의 차별화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힘썼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고창군 인구정책팀은 지난해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올해에는 고창군 ‘활력고창상’ 대상을 수상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 분야에서 연이어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박지연 인구정책팀장은 “뜻깊은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감사하다”며 “고향사랑기부제가 단순한 기부를 넘어 고창을 응원하고 고창과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내 마음속 고향, 고창’의 매력을 알리는 다양한 사업과 홍보를 추진해 기부자의 마음이 지

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최병철 글로벌투게더 김제 前이사장, 국민훈장 수훈

45년 나눔과 헌신의 삶

김제시는 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27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서 김제시 가족센터를 위탁하고 있는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 김제 최병철 前이사장(사진)이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훈은 45년간 한결같이 이어온 지역사회 복지와 나눔을 위해 헌신해 온 최병철 前이사장의 공적



발전을 위해 봉사하며 ‘나눔을 삶으로 실천한 사회복지인’으로 지역사회에 깊은 발자취를 남겼다.

특히 최 전이사장은 지난 2002년 본인 소유의 토지 1,800평을 김제시

에 무상으로 기부했으며 당시 현 시가 약 15억 원에 달했던 토지 기부는 김제시에안복지타운 조성의 초석이 됐다.

최 전이사장은 자원봉사 분야에서도 지난 2012년부터 2023년까지 김제시자원봉사종합센터 이사장으로 활동하면서 봉사단체 간 연대와 협력을 이끌고 지역의 자원봉사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기여했다. 은퇴 직전까지는 사단법인 글로벌투게더 김제 대표이사로서 가족복지와 다

문화가족 지원에도 힘을 쏟았다.

이번 수훈은 한 개인의 영예를 넘어, 오랜 시간 나눔을 실천해 온 지역사회 복지인의 헌신과 김제의 나눔·봉사 문화가 국가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45년 동안 한결같이 이어온 그의 발걸음은 ‘나눔은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꾸준히 실천할 때 지역사회의 변화가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주)베리굿팜, 성금 1,000만원 기탁

익산시 웅포면에서 19년째 꾸준한 나눔이 이어져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따뜻한 마음을 더하고 있다. 웅포면은 7일 김기진 (주)베리굿팜 대표가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1,000만 원을 지정 기탁했다고 밝혔다.

양돈업에 종사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해 온 김 대표는 2008년부터 19년 동안 꾸준히 이웃사랑을 실천해 왔다. 이번 기탁으로 그동안 지역사회를 위해 전달한 누적 성

금은 총 3억 1,000만 원에 이른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웅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전달된다.

김기진 대표는 “풍성해야 할 한 가위에 더욱 외로움을 느낄 수 있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기쁨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 채움늘 봉사단감곡면, 홀몸 어르신 지원

정읍시 감곡면 행정복지센터와 정읍 채움늘 봉사단(회장 백낙중)은 정읍 채움늘 봉사단(회장 백낙중)이 홀몸 어르신 가정을 찾아 청소와 도배·장판 교체로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지난 5일 감곡면 진농마을에서 진행된 봉사에는 봉사단 회원과 면사무소 직원 등 10명이 참여했다. 지원 대상은 홀로 생활하면서 주택 보수와 청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 가구다.

참여자들은 집 안팎에 쌓인 쓰레기를 치우고 생활공간을 정리했다. 벽지와 장판도 새로 시공해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왔다.

봉사단은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비롯해 홀몸 어르신 안부 확인과 마을 환경정화 등 다양한 봉사를 이어오고 있다.

지역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보태는 활동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범사어패럴 정숙자 대표 부안군에 장학금 기탁

(재)부안군 근농인재육성재단은 범사어패럴 정숙자 대표가 최근 열린 위도 상사화축제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정숙자 대표의 장학금 기탁은 이번이 처음 이 아니다.

정 대표는 지난 2020년과 2022년에도 각각 100만원씩 장학금을 기탁했으며, 지역 학생들을 위해 꾸준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이번 장학금 기탁은 아름다운 상사화가 피어나는 축제의 자리에서 지역의 미래를 위한 마음을 함께 나눴다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

정숙자 대표는 “제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일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역시 큰 행복을 느낀다”며 “기부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바, 작은 정성이지만 학생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여름봉사’ 마무리

신천지자원봉사단이 6월 16일부터 8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진행한 폭염 대응 봉사활동 ‘슬기로운 여름생활’을 마무리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번 활동에는 봉사자 2,633명이 참여했으며, 수혜자는 1만6,779명, 시민 참여자는 1만6,232명으로 집계됐다.

신천지자원봉사단은 거리와 가정, 농촌을 찾아 얼음물·음료 1만 236개, 대비용품 5542개를 전달했다.

농번기 일손 지원도 이뤄졌다. 옥천의 한 농가에서는 봉사자들이 고추밭 지지대 설치와 옥수수 1000자루 수확을 도왔다.

6월 호국보훈의 달에 시작한 참전유공자 기억 활동은 여름철 가정방문으로 이어졌다. 전쟁의 기록을 돌아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봉사자들은 유공자 가정을 찾아 냉방 환경과 생활 여건을 살폈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가을산의 아름다움 뒤에 숨겨진 위험, 산악사고 주의!

하나, 해지기 전 하산 (랜턴지참)
둘, 여벌 보온 의류 필수
셋, 미끄럼 방지 등산화 착용
넷,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

〈一事一言〉



594억 투입 내수면 양식, 건물 짓기 넘어 진짜 귀어 어민 키워내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전북도 '기술-임대-창업' 전주기 지원 체계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생존의 위기에 처한 어촌과 내수면 수산업을 살리기 위해 대대적인 승부수를 던졌다. 청년과 예비 어업인의 귀어·창업 지원을 위해 14개 사업, 총 594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고, '기술개발에서 교육·컨설팅, 시설 임대, 창업 및 정착'으로 이어지는 전주기(全週期)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다. 기존의 단발성·일회성 교육이나 시해성 보조금 지급 방식에서 벗어나, 초보 어업인이 현장에서 겪는 최대 난관인 고비용 초기 자본과 기술적 불확실성을 대폭 낮춰주겠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진일보한 정책 방향이다.

전북은 전국 내수면 양식 생산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수면 수산업의 요충지다. 여기에 김제시 백산면 일원에 들어설 250억 원 규모의 '내수면 양양지원 비즈니스센터'와 100억 원이 투입되는 '임대형 디딤돌 양식장', 그리고 토하와 내륙형 흰다리새우 등 고부가가치 품종 R&D가 결합한다면, 전북은 명실상부한 내수면 수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할 잠재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자본이 부족한 청년 어업인들에게 지자체가 임대형 양식장을 제공해 실전 경험을 쌓게 하고 창업 위험을 최소화하겠다는 아이디어는, 어촌 소멸을 막고 청년 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수백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대형 도정 사업들이 화려한 시작에 비해 초라한 결말을 맞았던 과거의 불쾌한 기억들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수많은 농어촌 지원 사업이 '거대한 신축 건물'과 '장비 구축'이라는 외형적 성과에 치중한 나머지, 막상 건물이 완공된 후에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세입만 먹는 하마로 전락하거나 '교육 수료생 수'라는 실적 채우기에 급급했던 우를 범하곤 했다.

시설 투자 넘어 판로망 확보와 현장 정착 밀착 관리 성패 가른다

594억 원이라는 거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이번 프로젝트가 또다시 '하드웨어 중심의 보여주기식 행정'으로 흘러가지 않으려면, 시작 단계부터 철저한 현장 중심의 검증과 실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양식 기술을 배우고 임대 양식장에서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해 내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수산업 현장에서 청년 어업인들이 가장 커다란 벽에 부딪히는 지점은 '생산'이 아니라 생산된 수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팔 수 있는 '유통과 판로 확보'다.

기존의 단단한 수산물 유통 기득권망을 뚫지 못해 판로가 막히거나, 수급 불균형으로 가격 폭락이 발생할 경우, 자본력이 취약한 신규 창업 어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게 된다. 따라서 전북도는 단순한 양식 시설을 빌려주고 기술을 가르쳐주는 단계에 머물지 말고, 수협 및 대형 유통업체와의 연계, 도내 로컬푸드 직매장 및 온라인 유통망 구축 등 생산물이 제값을 받고 팔릴 수 있는 '판로 보장 시스템'을 병행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2030년부터 매년 20명 배출, 5년간 100여가 정착'이라는 목표 수치가 단순한 숫자의 잔치로 끝나지 않으려면, 사후 관리 지표를 가혹할 정도로 정밀하게 다듬어야 한다. 교육 이수율이나 시설 입주를 같은 가시적인 지표에 안주하지 않고, 실제로 청년 어업인이 지역에 주민 등록을 두고 정착해 지속 가능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실제 정착률'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어촌의 미래는 숫자로 적힌 예산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땀 흘리며 미래를 일구는 청년 어민들의 삶으로 증명되는 법이다. 전북도는 김제 비즈니스센터와 디딤돌 양식장이 텅 빈 콘크리트 구조물이 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반영하는 밀착 행정을 펼쳐야 한다. 594억 원의 예산이 청년들에게 희망의 사다리가 되어, 전북의 내수면이 어촌 소멸을 극복하는 위대한 반전의 현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무주·진안·장수 공동 화장시설, 전북도가 나서라

무주·진안·장수 동부산악권에 화장시설이 단 한 곳도 없어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장정복 전북도위원이 3개 군이 함께 이용하는 공동 종합장사시설 조성을 촉구한 것은 충분히 타당하고 시급한 제안이다.

전국 화장률은 지난 5월 기준 94.9%에 달한다. 이제 화장은 보편적인 장례문화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전북의 공설화장시설은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에만 있다. 무주·진안·장수 주민들은 가족을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다른 지역 화장시설을 찾아 먼 길을 오가야 한다. 최근 4년간 3개 군의 화장장료금 지원 실적만 2,312건에 이른다는 사실이 이를 보여준다.

특히 무주는 화장 이용자의 약 85%가 대전·세종·경북 등 타 시·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진안과 장수 역시 대부분 전주에 의존한다. 고령화가 빠른 동부산악권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 이상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화장시설을 여전히 혐오시설로만 바라보는 인

식도 바뀌어야 한다. 누구에게나 삶의 마지막은 찾아온다. 고인을 존엄하게 보내고 유족의 불편을 덜어주는 장사시설은 도로나 의료시설처럼 주민 삶에 필요한 복지 인프라다.

그렇다고 인구가 적은 3개 군이 각각 화장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경제성과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않다. 따라서 화장·봉안·자연장·유족편의시설을 갖춘 공동 종합장사시설을 조성해 함께 이용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문제는 입지와 주민 수용성이다. 어느 한 군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전북도가 나서 수요와 접근성, 건립·운영비, 주민 인센티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3개 군의 협의를 이끌어야 한다.

사는 곳이 산간지역이라는 이유로 마지막 이별의 순간까지 불편과 부담을 감수하게 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는 공동 종합장사시설을 동부산악권의 필수 장사복지 사업으로 보고 타당성 조

사부터 서둘러야 한다.

▲오늘의시

법칙 / 류근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허공에 흩어진다	일사구에 매달린다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구름에 매달린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물방울 하나로 몸을 바꾼다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인다
물방울 하나가 죽어서 빗방울 하나로 몸을 바꾼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허공에 흩어진다	사는것도 죽는것도 한 몸 우주 안에서 도망갈 데가 없다
빗방울 하나가 살아서	

ㅣ독자투고ㅣ

경호는 통제가 아닌 안전이다



경호라고 하면 사람들은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싸고 접근을 막는 모습을 먼저 떠올린다. 종종 행사장 주변의 통제선이 나 차량 통제로 인해 불편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경호의 본질은 사람을 통제하는 데 있지 않다. 경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경호 대상자는 물론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데 있다.

경호는 위험이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보다 위험을 사전에 발견하고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주변의 위험 요소를 살피고, 이동 동선을 점검하며, 돌발상황에 대비하는 것도 모두 안전을 위한 과정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통제처럼 보이는

조치 하나에도 예상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한 판단이 담겨 있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서는 경호와 시민 안전이 더욱 밀접하게 연결된다. 경호 대상자에게 안전한 이동 공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일반 시민의 통행과 불편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호가 지나치게 시민의 일상을 제한해서도 안 되고, 시민의 편의를 이유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제와 개방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 모두가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시민의 역할도 중요하다. 현장에서 경찰의 안내나 통제에 협조하는 것은 단순히 질서를 지키는 것을 넘어 모두의 안전을 지키는 행동이다. 통제선을 무리하게 넘거나 지정된 동선을 벗어나는 행동은 예

상하지 못한 위험을 만들 수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이상한 물건이나 수상한 행동을 발견했을 때 경찰이나 안전요원에게 알려주는 작은 관심은 큰 사고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호는 경찰만의 노력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경찰은 위험을 한발 앞서 발견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시민은 현장의 안전 수칙과 안내에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야 한다. 경찰의 경호와 시민의 참여가 만날 때 비로소 안전한 현장이 만들어진다.

경호의 목적은 누군가를 둘러싸는 것이 아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무사히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키는 것이다. 경호는 통제가 아닌 안전이다. 그리고 그 안전은 경찰과 시민이 함께 만드는 것이다.

전주완산경찰서 경비작전계
경찰 이재운

시인 약력 : 1966년 문경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자랐다. 중앙대 문예창작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박사과정에 공부했다. 1992년 문화일보 신춘문예에 당선돼 시인으로 등단했다. 2010년, '상처적 체질'을 첫 시집으로 출간했다. 대학 재학 중 쓴 노랫말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이 김광석에 의해 불러져 유명세를 탔다. 저서로는 '함부로 사랑에 속아주는 버릇', '싸나히 순정', '사랑이 다시 내게 말을 거네', '상처적 체질' 등이 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발행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시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잠시멈춰 분류하는 습관,

우리 모두의 미래를 바꿉니다

종이

플라스틱

빈병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장수군민들의 높은 기대 속에서 출범한 제10대 장수군의회가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나섰다. 군민의 삶에서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로잡고 추진력을 높여야 할 역할과 책임이 주어졌다. 예산과 정책이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사업의 성과가 군민에게 고르게 돌아가는지, 추진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은 없는지를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 새롭게 출범한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지역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제10대 장수군의회 전반기를 이끌게 된 정상득 의장은 그 해답을 '현장'과 '실천'에서 찾겠다는 각오다.

〈편집자 주〉

군민과 함께 미래 여는 혁신의회 제10대 장수군의회 정상득 의장

“좋은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정책에는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의회가 되겠다”



기본사회의 출발점은 '군민의 삶' 농어촌기본소득을 넘어 돌봄과 교육, 의료, 주거, 교통 등 군민의 삶 전반을 보장하는 '기본사회'가 장수군의 핵심적인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제10대 장수군의회는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더불어 그 실효성을 면밀히 살피는 한편, 군민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에 함께 나설 방침이다.

이 밖에도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 간 중복은 없는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지, 읍·면별 여건과 주민 수요가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중요한 점검 대상이다.

정상득 의장이 제시한 '도 농가수당과 연계한 농민수당' 역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의 관계, 지원 대상과 방식, 재원 부담과 형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군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다.

정 의장은 “군의회는 군민의 삶을 대신 책임지는 자리”라고 강조하며 “군민의 일상을 정책과 제도로 지탱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미래농업, 사업 규모보다 농가의 변화를 살펴야
농업은 장수의 뿌리이자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산

업이다. 그러나 생산비 상승과 농산물 가격 불안, 기후위기와 자연재해,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은 장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집행부는 장수한우와 사과, 토마토, 오미자, 상추, 양파 등 대표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스마트농업과 유통·가공 혁신, 청년농업인 육성을 통해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의회는 사업비의 규모나 시설 확충 실적보다 정책이 농가소득과 경영 안정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또, 농산물 유통과 판로 확대, 재해 대응체계,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 보조사업의 편중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정 의장은 “농민이 안정적으로 농사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군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농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농업정책은 과감히 개선하고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은 조례와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뜻이다.

생활기반을 잇고, 관광성과는 지역경제로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것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생활기반 확충과 관광정책 확장은 지역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다.

정 의장은 “정주여건 개선은 단순히 시설을 새로 짓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고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이미 조성된 시설이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되는 것을 기반으로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교육, 의료와 교통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라는 의정 철학을 제시했다.

특히, 그동안 읍·면과 마을 단위에 조성된 각종 시설 가운데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거나 운영 부담만 남긴 사례가 없는지 짚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새로운 건립사업은 실제 필요성과 향후 운영계획, 유지관리비, 주민 이용률까지 면밀히 따져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겠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사계절 관광도시 조성도 같은 기준에서 접근해야 한다”라면서 “장수누리파크와 장안산 역사숲, 뜬봉샘 국가생태관광지, K-샤모니 등 관광자원이 서로 연결되고 관광객의 체류와 소비가 지역 상권의 소득으로 이어지는지 살펴야 한다”라고 말했다.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관광객이 머물고 다시 찾는 구조, 관광의 성과를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이 함께 누리는 구조를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뢰받는 의회를 견인하는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회'

군민과 소통하는 신뢰 행정은 집행부만의 과제가 아니다. 의회 역시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과 조례, 예산에 충실히 반영하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 의장은 제10대 의회에서는 의원 간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해 '공부하는 의회, 정책을 만드는 의회'로 거듭나겠다는 구상이다.

이미 양수발전소 조성 등 기본사회 정책 등 굵직한 지역 현안에 대한 연구단체를 구성하고 운영에 착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장수군의회 하반기 달력은 2025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군정주요사업실행보고서, 행정사무감사, '2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등 회기일정으로 바빠있다.

정 의장은 “군정의 청사진을 군민의 삶으로 연결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다시 군정에 전달할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좋은 정책에는 힘을 싣고, 부족한 정책에는 더 나은 대안을 내놓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